



## 선으로 그린 풍경

불을 켜는 때도 멋진 조명등은 없을까? 이상용 작가는 하나만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 '바퀴'를 모티브로 속도를 강조하는 현대사회에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한다. 조명등을 마치 모빌처럼 감상하도록 리운지체어를 매치해 이능한 리빙 공간을 완성했다.

금속과 고재, 코르크, 왕골 등 다양한 소재를 조합한 머티리얼 컨테이너 시리즈 스톨은 모두 서정화 작가 작품. 황동과 나무로 미니멀한 디자인을 구현한 테이블 램프는 이상민 작가 작품으로 갤러리ERD, 르코르뷔지에와 샤를로트 페리앙이 함께 디자인한 LC4 롱 체어, 하이메 아온이 디자인한 사이드 테이블은 카사나 제품으로 크리에이티브랩 판매.